

# 광주 인공지능사관학교 '미래 AI 인재 모시기' 나선다

### 31일까지 330명 모집...교육비 일체·노트북 등 무상 제공 이론·실습 과정 등 10개월 교육...최신 기술 반영 과목 추가

‘대한민국 대표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을 위한 인공지능사관학교가 전국 청년층을 대상으로 우수한 신규 교육생 모집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광주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지원하는 전국 유일 인공지능사관학교(AI사관학교)는 “지난 1차 모집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청년들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최종 추가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 모집하는 교육생은 AI사관학교 5기 생으로, 지난 1-2월 진행된 1차 모집에선 370명이

신청했다.

특히 이번 5기 교육부터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데이터분석’, ‘맞춤형 챗봇을 구축하는 LLM 활용’, ‘챗 GPT로 MBTI 검사 웹사이트 만들기’ 등 최신 AI 기술 동향에 맞춘 특화 교육과정이 새롭게 편성될 예정이어서 교육 희망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오는 31일까지 모집하는 5기 교육생은 만 18-39세 미취업자(취·창업 준비생) 330명을 최종 선발하며, 인공지능사관학교 홈페이지에서 학력, 전공,

성적, 거주지 등의 조건 없이 인공지능에 관심 있는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1차 서류심사와 온라인 기초·심화과정 이수(수준별 기초학습 제공), 역량 테스트 등 단계별 선발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중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5기 교육은 총 10개월간 인공지능 이론 및 실습 교육 과정과 프로젝트 과정으로 운영되며, 인공지능 모델링,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인공지능 플랫폼과 인프라 등 3개 트랙으로 구성된다.

AI사관학교는 기업 연계 프로젝트를 통해 교육생에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최신 기술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교과별 역량평가를 실시하는 등 교육생 맞춤형 교육(역량 강화학습, 글로벌 온라인 콘텐츠, 동아리·스터디·자격증 취득)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생에게는 교육비 전액과 교통비, 중식비, 숙박비, 교재 및 학습 콘텐츠 등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비롯한 노트북 등 교육 기자재와 인공지능 전문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콘텐츠 및 응시 비용 등을 지원한다. 또 현장 개발자와의 토크콘서트, AI기업 브릿지데이, Cheer-Up Day, 선후배 네트워킹 Connecting Day 등 교육생의 취·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수준 높은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제공되며, 우수 교육생에게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인 ‘CES 2025’를 참관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전국 유일의 ‘인공지능(AI) 인재양성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AI사관학교는 2020년 첫 모집 이후 4년간 탄탄한 AI 교육과정을 통해 총 916명의 우수 인력을 배출했으며, 특히 지난 3-4기 교육

생 중 비전공자 비율이 70%에 달할 정도로 비전공자의 역량 강화에도 특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관계자는 “올해 인공지능사관학교 5기 교육은 비전공자들도 즉시 현장 투입이 가능하도록 기초부터 실무까지 체계적인 교육생 맞춤형 교육과 함께, 생성형 AI 등 최신 동향을 반영한 과목을 추가 제공할 계획”이라며 “인공지능에 관심 있는 전국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AI사관학교 5기 모집 사전설명회는 오는 19일 오후 4시 광주시 동구 AI사관학교 AI 카페에서 진행되며, 지난해 졸업한 AI사관학교 4기 수료생의 수료 및 취업 후기와 교육 프로그램별 상세한 안내 등이 예정돼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경제 활성화 협력 논의 강기정 광주시장이 11일 서구 한 식당에서 기아·협력업체·근로자·한국노총·경총 등 관계자들과 오찬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 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당부했다. <광주시 제공>

## 광주시, 건설공사 품질혁신기획단 출범

### 전국 최초 민간협치 모델 건설공사 품질관리 제시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민간전문가 주도형 ‘민관 합동 건설공사 품질혁신기획단’을 구성·운영한다.

광주시종합건설본부는 11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문제점을 모니터링하고, 품질관리 기술 발전과 역량 강화, 제도 개선 및 정책들을 논의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주도형 협치모델 ‘민관 합동 품질혁신기획단’을 구성하고, 오는 14일 출범식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품질혁신기획단은 건설사, 시험기관, 인허가

관, 발주청 등이 건설공사 품질관리 문제와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전담 기구다.

한국 건설품질기술사회, 한국 건설안전학회 소속 전문위원 19명과 종합건설본부, 농어촌공사 등 품질 시험기관 전문가 13명 등 총 32명으로 꾸려졌다. 위원장은 최명기 한국건설품질기술사회·한국 건설안전학회 부회장이, 지원단장은 여관영 한국 시험연구원 대표가 맡는다.

최명기 위원장은 “건설공사 품질관리는 발주자, 건설 현장 관계자, 공무원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개선될 수 없다”며 “국내 최 기술자들과 함께 관련 법령과 제도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시, 장년세대 생애전환기 재설계 지원

### '50+ 재설계' 서비스 확대 운영 8개 영역 상담·취업 연계 서비스

광주시가 장년세대(만 45-64세) 생애전환기 재설계를 위한 체계적 지원에 나선다.

광주시는 “중장년 생애재설계 거점공간인 ‘빛고을50+센터’의 생애재설계 상담영역을 확대하는 등 콘텐츠를 재정비하고, 빛나는 건강아카데미, 사회참여프로젝트 등 ‘50+지원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우선 장년세대를 위한 원스톱 종합상담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일·여가·건강·재무·관계 등 생애 재설계 상담에 나선다.

특히 커리어 액트 진단검사, 노후준비 체크리스트 등 전문진단검사를 거쳐 사회공헌, 주거설계, 자산관리, 여가활동, 건강웰빙, 자기계발, 가족사

회관제, 직업경력 등 8개 영역별 상담·교육·취업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올해부터 빛고을50+센터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서구와 북구에 찾아가는 분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인근 생활권에서 장년 지원 정책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1월 문을 연 서구분소 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노후준비 아카데미’를 시작으로, 4월에는 북구분소 제이사회적협동조합에서 정규과정인 인생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 광주시 장년층 실태조사를 통해 노후준비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힌 소득보전을 위해 연말까지 45세 이상 65세 미만 퇴직전문인력 250명을 선정하고, 경력·전문성을 활용한 사회공헌 일자리도 제공한다.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는 건강관리 ‘빛나는 건강 아카데미’와 사회변화 및 장년세대의 관심사를 다

룬 특강프로그램 ‘빛나는 사회프로젝트’, 취미·학습·문화 등 다양한 커뮤니티 지원도 확대한다.

광주시는 올해 장년층의 지원방안 연구과제를 통해 장년층 실태 및 욕구조사, 제반여건 분석, 장년층의 다양한 요구와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양혜숙 광주시 고령사회정책과장은 “장년층에게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모델을 지속 제공하고, 이들이 복지·환경·문화 등 지역현안을 함께 해결하는 ‘이음세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 광주 동구 학동에 문을 연 빛고을50+센터는 장년층 노후준비를 위한 일·배움·여가·복지·정보 등 복합서비스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분야별 상담·교육·커뮤니티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밴드와 50+포털회원 1900여명, 컨설팅·프로그램 이용자 6200여명, 일자리 상담 및 재취업자 8000여명 등 1만6000여명이 이용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하세요”

### 전남도, 다음달 30일까지 접수 ha당 유기 70만·무농약 50만원

전남도가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을 오는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친환경농산물(유기·무농약) 인증을 받고 농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불금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의 지급 한도는 농기당 5ha다. 지급단계는 인증단계 및 품목별 지급단계에 따라 재배면적에 비례해 지급한다. 논은 ha당 유기 70만원, 무농약 50만원이다. 과수는 유기 140만원, 무농약 120만원을 지급하며, 채소·기타 밭작물은 유기 130만원, 무농약 11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기간은 유기는 최대 5년(무농약 3년 포함), 무농약은 최대 3년이다. 유기 6년차부터는 유기지속 직불금으로 유기 직불금 단가의 50%인

는 35만원, 과수 70만원, 채소·기타 밭작물은 65만원을 기간 제한 없이 계속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은 사업 기간(2023년 11-2024년 10월) 친환경인증을 유지하고 5월에서 10월까지 친환경농업 실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인증기관이 점검해 적합으로 통보받은 경우다.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 기간 내 친환경인증 기간이 만료 예정인 농업인은 인증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하고, 갱신되지 않으면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유덕구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일반농업과 달리 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친환경농업인을 위한 친환경직불금 지원단가 인상이 필요하다”며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 감소 및 생산비 보전 등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정부 건의, 예산 증액 활동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